

류전원 《咸的玩笑》 연구

— 일상적 사소함의 부조리화와 블랙유머 서사를 중심으로 —

손 흥 매*

<目次>

- | | |
|----------------------------|--------------------------|
| I. 서론 | III. 블랙유머와 현대인의 생존
근경 |
| II. 일상적 사소함과 부조리한 서사
구조 | 1. 권위와 질서의 붕괴 |
| 1. 인과 질서의 이완과
우연성의 지배 | 2.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 |
| 2. 명명과 실재의 어긋남 | 3. 웃음의 생존 전략 |
| 3. 일상 논리의 전도 | IV. 결론 |

<중문초록>

本文以刘震云2026年长篇小说《咸的玩笑》为研究对象，探讨日常琐事如何成为荒诞生成的具体现场，以及这种荒诞如何通过黑色幽默的叙事形式得以呈现。研究方法上，本文以文本细读为基础，围绕作品中的关键情节与反复出现的叙事模式展开分析。研究发现，小说通过金钱管理、命名行为、饮食琐事、礼物形式与日常闲谈等生活细节，揭示了因果秩序的松动、命名与实在的错位以及日常逻辑的颠倒；同时，又通过权威与秩序的崩塌、关系与意义的不稳定以及笑作为生存策略等层面，将失衡的日常经验转化为具有黑色幽默特征的叙事结构。由此可见，《咸的玩笑》中的黑色幽默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并非附加性的修辞装饰, 而是感知并表达荒诞现实的核心叙事形式。尤其值得注意的是, 笑在作品中并不承担解决问题的功能, 而是作为一种最低限度的生存策略, 使人物得以在关系失序、意义不稳与权威失效的处境中继续活下去。由此, 《咸的玩笑》表明, 日常琐事并非荒诞之外的背景, 而正是荒诞得以生成和展开的现实空间; 黑色幽默则构成了表现这一现实经验的关键方式。

关键词: 日常琐事; 荒诞; 黑色幽默; 叙事结构; 刘震云

I. 서론

류전윈(刘震云)은 중국 당대문학에서 일상생활의 균열과 인간 존재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온 작가이다. 그의 소설은 거대한 사건이나 비범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생활 속의 사소한 말다툼, 체면의 손상, 식탁 위의 갈등, 관계의 어긋남과 같은 미시적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의 불안정성과 삶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류전윈 소설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괄하는 데 있지 않다. 본고는 2026년에 출간된 장편소설 《咸的玩笑》¹⁾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이 작품이 어떻게 일상적 사소함을 부조리의 생성 구조로 조직하고, 다시 그것을 블랙유머의 서사 형식으로 전환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咸的玩笑》는 납팔절(腊八节) 하루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주인공 두타이바이(杜太白)가 연진(延津) 현성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장편소설이다. 두타이바이는 원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으나 술자리 논쟁 이후 교직을 떠났고, 현재는 혼례와 장례의 사회를 맡아 생계를 이어 가는 인물이다. 그는 이혼 후 이협현(二夹弦) 배우 텐진슈(田锦绣)와

1)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교제하고 있으나, 결혼 이후의 경제권과 생활 질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다. 소설은 이러한 현재의 서사와 더불어, 작중 이른바 ‘題外話’, 곧 본 줄거리에서 벗어난 삽입적 결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 배치한다. 그 안에는 아들 빠리(巴黎)의 사랑과 도피, 지밍(智明) 화상의 생애와 죽음, 두타 이바이 자신의 어린 시절, 각종 술자리와 장례식, 시장과 밥자리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삽입된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 중심 사건과 주변 일화가 교차하는 구성은 인과관계가 단선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세계를 형식적으로 구현하며, 작품 속 사소한 사건들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비대화되는 서사적 토대를 이룬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생활의 세부가 오히려 서사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류전원 소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미 비교적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먼저 일상생활 서사에 주목한 연구들은 류전원 소설이 반복적인 생활세계의 층위를 통해 사회 구조와 개인 심리의 긴장을 드러낸다고 보았다(梁维正, 2023; 何慈, 2023)²⁾. 또한 그의 서사 전략과 언어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반어, 반복, ‘닝바(拧巴)’와 같은 서사적 장치, 그리고 소통 불가능성과 의미의 불안정이 인물의 존재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章琦, 2023; 闫葳, 2024)³⁾. 한편 부조리성과 블랙유머에 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류전원 소설이 일상의 불안과 생존의 곤경을 반송고적이고 희비극적인 방식으로 조직한다는 점이 주목되어 왔다(万李敏, 2024; 徐刚, 2025; 杨子群, 2025; 万魏, 2023)⁴⁾. 이러한 연구들은 류

2) 梁维正, 《论刘震云小说的日常生活叙事》, 华中科技大学 석사학위논문, 2023; 何慈, 《论刘震云小说的日常生活书写》, 兰州大学 석사학위논문, 2023.

3) 章琦, 《论刘震云小说的叙事策略》, 青岛大学 석사학위논문, 2023; 闫葳, 《论刘震云小说中的“失语者”》, 上海外国语大学 석사학위논문, 2024.

4) 万李敏, 《后现代主义视域下的刘震云小说研究》, 长江大学 석사학위논문, 2024; 徐刚, 〈“故事”的情感伦理与存在主义启示——刘震云《一句顶一万句》《一日三秋》合论〉, 《山西大学学报》 제48권 제4기, 2025; 杨子群, 〈刘震云“荒诞生存诗学”的叙事功能与文学史意义——以《一句顶一万句》《我不是潘金莲》《温故一九四二》为例〉, 《艺术研究》, 2025; 万魏, 〈刘震云小说黑色幽默主题下的形

전원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며, 본고 역시 이 성과들 위에서 출발한다. 다만 기존 연구의 중심은 대체로 《一句顶一万句》, 《我不是潘金莲》, 《一日三秋》 등 이미 문학사적 위상이 확립된 대표작들에 놓여 있었고, 《咸的玩笑》와 같은 신작을 대상으로 그 서사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일상적 사소함을 통해 관계의 균열과 삶의 불안을 드러낸다는 점은 《咸的玩笑》만의 독자적 특징이라기보다 류전원 소설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 역시 류전원 문학에서 일상성, 부조리성, 블랙유머를 각각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咸的玩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더 이상 각각 분리된 주제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서사 구조 안에서 긴밀하게 결합된다는 점이다. 특히 《咸的玩笑》의 의미는 일상성, 부조리성, 블랙유머가 각각 독립된 문제로 제시되는 데 있지 않고, 이 세 요소가 하나의 서사 구조 안에서 더욱 응축된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점에 있다. 이 작품에서 돈 관리, 이름 짓기, 음식의 간, 선물의 형식, 술자리 잡담과 같은 사소한 생활 사건은 단순한 배경이나 현실의 세부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세한 원인이 과잉된 결과로 비대화되는 부조리의 생성 현장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부조리는 다시 웃음, 반어, 형식의 어긋남, 우스꽝스러운 상황 전개를 통해 블랙유머의 서사 형식으로 조직된다. 특히 작중 이른바 ‘題外話’, 곧 본줄거리에서 벗어난 삽입적 결이야기는 현재와 과거, 사건과 기억, 표면적 계기와 누적된 감정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인과 질서의 불안정성을 형식 차원에서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목적은 《咸的玩笑》에 일상성이 있다거나 부조리성이 있다거나 블랙유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일상적 사소함이 어떻게 부조리의 생성 현장으로 기능하고, 그러한 부조리가 다시 블랙유머의 형식을 통해 현대인의 관계 불안, 의미의 불안정, 생존의 곤경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조

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류전원 연구의 일반론을 반복하기보다, 《咸的玩笑》라는 신작을 중심으로 일상성·부조리성·블랙유머의 결합 양상을 해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처럼 《咸的玩笑》의 구조적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조리’와 ‘블랙유머’의 개념을 미리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부조리’는 철학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 전체의 무의미를 지시하는 추상적 개념이라기보다, 일상생활 내부에서 인과관계가 어긋나고, 이름과 현실이 맞물리지 않으며, 형식과 본질의 위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적·서사적 불균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咸的玩笑》에서 부조리는 비일상적 사건이나 극단적 파국에서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 관리, 식사 자리의 체면, 선물의 형식, 이름 짓기, 술자리 잡담과 같은 생활 내부의 미세한 장면에서 발생한다. 한편 본고에서 ‘블랙유머’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가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를 웃음, 반어, 어긋난 형식,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전개를 통해 서사화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블랙유머는 고통을 희석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너진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감각하게 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인물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서사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본고가 《咸的玩笑》를 읽는 기본적인 분석 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작품의 핵심 장면과 반복되는 서사 패턴을 중심으로 텍스트 세독을 수행한다. 제Ⅱ장에서는 《咸的玩笑》에 나타난 일상적 사소함의 부조리화를 인과 질서의 이완과 우연성의 지배, 명명과 실제의 어긋남, 일상 논리의 전도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블랙유머와 현대인의 생존의 근경을 중심으로, 권위와 질서의 붕괴,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 웃음의 생존 전략을 논의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咸的玩笑》가 류전원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일상적 사소함과 부조리한 서사 구조

《咸的玩笑》에서 부조리는 비일상적 사건이나 극단적 상황에서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사소한 생활 장면 속에서 형성된다. 류전원은 돈 관리, 이름 짓기, 음식의 간, 선물의 형식, 일상적 대화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생활 내부에 잠재한 불균형과 어긋남이 어떻게 점차 부조리한 구조로 조직되는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일상적 사소함은 단순한 현실적 배경이나 세부 묘사에 머물지 않고,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 기억과 해석이 충돌하면서 부조리가 실제로 발생하고 증폭되는 서사적 현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咸的玩笑》에 나타난 부조리의 생성 양상을 인과 질서의 이완과 우연성의 지배, 명명(命名)과 실재(實在)의 어긋남, 일상 논리의 전도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인과 질서의 이완과 우연성의 지배

류전원은 삶의 엄혹함이 거대한 사건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 사소함 속에 놓여 있다고 본다. 《咸的玩笑》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더 나아가 일상 내부의 인과 질서 자체가 이미 느슨해져 있음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사소한 대화, 순간적인 감정, 별 뜻 없어 보이는 언행은 본래의 비중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낳는다. 이때 부조리는 비일상적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내부에 잠재해 있던 ‘미세한 원인-과잉된 결과’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咸的玩笑》의 세계에서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 체면의 논리에 의해 예기치 않게 증폭되며, 원인과 결과는 더 이상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장면은 두타이바이(杜太白)와 텐진슈(田锦绣) 사이의 돈 관리 대화이다. 표면적으로 이 장면은 결혼을

앞둔 연인이 혼인 이후의 생활비와 수입 관리를 상의하는 평범한 대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로 이 일상적 협의의 순간에 해석의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은 곧 관계 불안의 출발점으로 바뀐다. 텐진슈가 결혼 후 집안 돈을 누가 관리할지를 묻자, 두타이바이는 거의 망설임 없이 동의한다. 하지만 그 합의가 구체적인 생활 규칙의 문제로 옮겨지는 순간, 두타이바이는 그것을 더 이상 단순한 가게 운영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돈이 명목상으로는 자기 것이더라도, 관리권을 넘기는 순간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곧 “钱归谁管, 看似是钱的问题, 其实不是钱的问题, 而是主权问题(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걸으로는 돈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⁵⁾라고 인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경제적 손실의 크기 자체가 아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일상적 협의가 어떻게 자기 지배권과 주도권의 문제로 재부호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텐진슈에게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결혼 이후의 역할 분담과 생활 질서를 뜻하지만, 두타이바이에게 그것은 곧 자기 통제력 상실의 징후로 읽힌다.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해석 틀 안에서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언어의 표면적 합의 아래 숨어 있는 인식 구조의 비대칭성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은 현재의 대화가 결코 현재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준다. 두타이바이가 이 문제를 곧바로 ‘주권’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라기보다, 이전의 관계들 속에서 이미 경험한 통제와 억압의 기억이 현재의 말을 위협의 징후로 번역한 결과에 가깝다. 다시 말해, 현재의 협의는 과거의 경험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으며, 과거의 감정은 현재의 언어를 즉시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는다. 그 결과 원래는 생활상의 조율에 속하던 문제가 빠르게 관계 전체의 균열로 비대화된다. 이처럼 《咸的玩笑》에서 인과는 객관적 사실의 연쇄가 아니라, 기억과

5)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26쪽.

해석이 개입한 불안정한 관계망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인과적 불안정성은 ‘넷 냥 양고기’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두타이바이가 양고기 사 냥(四兩)을 다져 달라고 하자, 라마오(老馬)는 이를 거절하고, 작품은 곧 “老馬不给四两羊肉打馅, 决不是四两羊肉的事(라오마가 양고기 사 냥을 다져 주지 않은 것은 결코 사 냥 양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⁶⁾라고 적시한다. 이 한 문장은 현재의 갈등이 눈앞의 거래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실제 원인은 이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감정의 앙금이다. 남관의 길거리 음식점에서 각자 비용을 나누어 내는 술자리, 즉 이른바 ‘打平伙’를 하던 중 두타이바이가 더는 술을 마시지 못해 마오의 술잔을 받지 않자, 마오는 이를 단순한 음주 거절이 아니라 체면 손상으로 받아들인다. 이후의 ‘양고기 사 냥’ 사건은 바로 그때의 감정이 다른 장면 속으로 되돌아온 결과이다. 한 잔 술을 마시지 않은 일과 양고기 다짐 거부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작품 속 인과는 바로 이러한 비대칭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과거의 사소한 불쾌감이 현재의 거래 행위를 지배하고, 현재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사안보다 오래 묵은 체면과 감정에 의해 규정된다. 이 점에서 《咸的玩笑》의 현재는 언제나 순수한 현재로 머물지 못하고, 미해결된 과거를 끌어안은 채 작동한다.

두타이바이가 교직을 잃게 되는 과정 역시 ‘미세한 원인-과잉된 결과’라는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본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으나, 술자리에서 고전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폭행으로 번지고 그 장면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교직을 잃는다. 특히 이 논쟁은 현실적 이해관계가 큰 문제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이상인(李商隱)의 시구 해석이라는 지극히 학술적이고 언어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해석 차이는 술자리라는 공간을 거치며 곧 체면 경쟁과 신체적 충돌로 비화하고, 결국 삶의 궤적 전체를 바꾸는 사건으로 번진다. 두타이바이는 이를 두고 “从黄

6)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32쪽.

金时代到黄了, 就距一顿饭的工夫(황금시대에서 끝장난 상태로 떨어지는 데는 한 끼 밥 먹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⁷⁾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오랜 시간 축적된 직업적 위치와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더욱이 그는 실직 이후 우연히 결혼식 사회를 대신 맡게 되면서 새로운 생업의 길을 열게 되는데, 이 또한 삶이 계획과 의지보다 우연한 사건의 연쇄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인과는 더 이상 안정적인 경력 축적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찮아 보이는 술자리 다툼이 직업 상실로 이어지고, 또 다른 우연이 새로운 생계의 통로를 열어 주는 식으로, 삶의 방향은 비합리적이고 불균형한 방식으로 굴절된다.

요컨대 《咸的玩笑》에서 인과 질서의 이완은 사소한 생활 혐의가 곧바로 관계 전체의 문제로 비대화되고, 지나간 감정이 현재 장면을 다시 규정하며, 우연한 사건이 삶의 궤적 자체를 바꾸는 방식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타이바이와 텐진슈의 돈 관리 대화는 일상 언어의 작은 차이가 어떻게 관계의 불안으로 증폭되는지를 보여 주고, ‘양고기 사 냥’ 사건은 과거의 술자리 감정이 현재의 거래를 지배하는 양상을 드러내며, 교직 상실의 에피소드는 미세한 해석 차이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일상적 사소함은 더 이상 안정된 삶의 배경이 아니라, 부조리가 실제로 발생하고 증폭되는 핵심 현장이다.

2. 명명(命名)과 실재의 어긋남

명명(命名)은 본래 인간이 세계를 분류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대상을 언어 질서 안에 편입시켜 식별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咸的玩笑》에서 명명은 언어와 현실 사이의 안정적 대응을 세우기

7)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86쪽.

보다, 오히려 양자 사이의 어긋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작품에서 이름은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표지가 아니라, 욕망과 현실의 간극, 형식과 실제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기호가 된다. 다시 말해, 이름은 현실을 정리하고 고정하는 수단이기보다, 도달할 수 없는 욕망과 현재의 삶 사이에 놓인 거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두타이바이(杜太白)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대목이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텔레비전에서 본 도시 이름을 끌어와 아들을 ‘빠리(巴黎)’, 딸을 ‘뉴욕’, 친척 아이를 ‘런던’이라 부른다. 이러한 명명은 단순한 즉흥성이 아니라, ‘남다름’과 ‘국제성’에 대한 상상적 욕망을 반영한다. 두타이바이는 자신이 평생 파리에 갈 수 없다면 “去不了巴黎, 就让巴黎来延津, 时时刻刻在身边吧(파리에 갈 수 없다면, 파리가 연진으로 오게 해서 늘 내 곁에 두면 되지)”⁸⁾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름은 현실을 반영하는 표지가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언어적으로 곁에 끌어당기려는 보상 장치가 된다. 다시 말해, 명명은 현실을 묘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의 결핍을 상상적으로 메우려는 행위로 전환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름과 현실의 어긋남은 더욱 분명해진다. ‘빠리’라는 이름이 환기하는 것은 세계도시, 세련됨, 국제성과 같은 상징이지만, 실제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은 연진 현성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후 빠리는 결국 ‘빠리 차량점’을 운영하고, 뉴욕과 런던 역시 지역적 삶의 맥락 안에 머문다. 이름은 세계성을 가리키지만, 삶은 끝내 지역성과 일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때 이름은 현실을 끌어올리는 기호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욕망 사이의 거리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표면이 된다. 《咸的玩笑》는 이를 통해 이름이 더 이상 대상에 걸맞은 의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섯 마리 새끼 고양이의 이름 짓기 장면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자의식

8)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48쪽.

적으로 드러낸다. 텐진슈(田锦绣)가 두타이바이에게 고양이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아취(雅趣)’와 ‘속취(俗趣)’로 나누고, 《시경》에서 따온 이름들과 ‘부귀, 영화, 길상, 여의’와 같은 통속적 이름들을 각각 제시한다. 그러나 텐진슈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한다. 그녀의 판단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이다. 곧 “雅的听不懂, 叫不起来(고상한 이름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불러도 입에 붙지 않는다)”⁹⁾는 것이다. 이 말은 명명의 가치가 문화적 위계나 미적 품격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불리고 이해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준다. 두타이바이에게 이름이 차이와 상상력의 표현이라면, 텐진슈에게 이름은 먼저 생활 속에서 ‘붙릴 수 있어야 하는’ 언어 실천인 셈이다. 이 장면은 명명이 추상적인 문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사용 논리 속에서 평가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즉 두타이바이가 이름을 통해 상징적 차별성과 문화적 격조를 부여하려 한다면, 텐진슈는 그 이름이 실제 삶 속에서 이해되고 반복될 수 있는가를 더 중시한다. 여기서 이름은 더 이상 고정된 의미의 그릇이 아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누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기능과 가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咸的玩笑》는 명명이 본질적으로 언어적 지배의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생활의 현실 앞에서 쉽게 수정되고 무력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실천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어긋남은 ‘조신(灶神)’ 에피소드에서도 확인된다. 전통 민간신앙에서 조신은 집안의 선악을 기록하여 하늘에 보고하는 신적 존재이며, 그 이름은 초월적 권위와 공정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두타이바이는 조신을 매우 성실하게 기록하는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제물만 받으면 “只说好事, 不说坏事(좋은 일만 말하고 나쁜 일은 말하지 않는다)”¹⁰⁾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로써 ‘조신’이라는 명칭이 약속하는 신성성과 실제 기능은 정

9)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30쪽.

10)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24쪽.

면으로 어긋난다. 더 나아가 그는 조신 숭배를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관계 유지와 일상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신성한 명칭은 유지되지만, 그것이 지탱하는 의미 체계는 이미 세속적 관계 논리 속에서 다시 짜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실질적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결국 《咸的玩笑》에서 명명은 세계를 안정적으로 질서화하는 언어 행위라기보다, 현실의 불안정성과 의미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장치에 가깝다. ‘빠리/뉴욕/런던’은 이름이 욕망과 세계성을 담을 수는 있어도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고양이 이름 짓기는 명명이 끝내 생활 속 사용 논리에 종속된다는 점을 드러내며, ‘조신’은 가장 신성한 명칭조차 현실의 관계 논리 속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이름은 더 이상 현실을 안정적으로 지시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명명과 실재의 어긋남’은 《咸的玩笑》의 부조리한 서사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3. 일상 논리의 전도

앞 절에서 살핀 ‘명명(命名)과 실재(實在)의 어긋남’이 언어 차원에서 이름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면, 본 절에서 주목하는 ‘일상 논리의 전도’는 사건 차원에서 형식과 본질, 표상과 실제의 위계가 뒤바뀌는 양상을 가리킨다. 《咸的玩笑》에서 류전원은 겉으로는 사소하고 익숙해 보이는 생활 장면을 통해, 일상 내부의 질서가 더 이상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원래는 배려와 유대를 매개해야 할 형식이 오히려 공격의 통로가 되고, 본질적 문제는 표층적 현상에 가려진다. 이때 부조리는 특별히 비정상적인 사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형식과 표상이 본질을 대체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咸的玩笑》의 세계에서 문제는 사건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고 외형이 실재를 압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은 허권잉(何俊英)이 ‘새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두타이바이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실제 선물이 아니라, 딸 뉴욕이 동성과 연애 중이라는 정보이다. 작품은 이를 “你女儿谈恋爱了, 你知道吗?(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니?)”라는 말로 시작하여, 곧 “这恋爱不是一般的恋爱, 同性恋(그 연애는 보통 연애가 아니라 동성애다)”¹¹⁾이라고 이어 간다. 여기서 핵심은 정보의 내용 그 자체보다, 그것이 왜 하필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축하, 배려, 관계 유지와 결부되는 행위이며, 적어도 상대방에게 호의의 외형을 제공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선물’은 온기와 유대를 전달하는 대신, 불안과 압박을 증폭시키는 매개로 기능한다. 즉 형식은 여전히 ‘선물’이지만, 그 실제 기능은 정반대로 뒤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咸的玩笑》의 블랙유머가 발생한다. 허권잉은 직접적으로 갈등을 선언하지 않고, 명절의 언어 형식을 빌려 공격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선물이라는 말이 원래 기대하게 만드는 호의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정적 내용은 더욱 돌출적으로 나타나며 반어적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이 장면에서 전도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상적 배려의 형식 자체이다. 류전원은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형식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전도는 관계의 본질과 표상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콩나물 간’ 장면이다. 두타이바이와 허권잉의 26년 결혼생활은 결국 볶은 콩나물의 간이 짠지 싱거웠는지를 둘러싼 다툼 끝에 파국으로 향한다. 겉으로 보면 이는 음식 하나의 간을 두고 벌어진 자질구레한 실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콩나물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말다툼의 방식과 시비를 가리는 습관, 그리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는 생활의 반복이다. 즉 콩나물

11)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201쪽.

의 간은 표층적 계기에 불과하며, 실제 원인은 장기간 축적된 관계 내부의 피로와 균열에 있다. 이 점은 두타이바이가 “不能把余生再放到争论对错和是非上, 不再苦道理和智商了(남은 인생을 더 이상 옳고 그름과 시비를 따지는 데 쓰고 싶지 않다. 더는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며 서로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¹²⁾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분명해진다. 이 말은 그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음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도리’와 ‘시비’에 잠식된 생활 방식 전체임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콩나물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그 파탄을 가장 가시적이고 말하기 쉬운 형태로 압축한 표상이다. 관계의 본질적 위기는 하나의 사소한 생활 장면으로 환원되고, 표층 현상이 본질을 대신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전도는 일상적 서비스와 체면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두타이바이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다가 얼굴이 베이는 장면이 그러하다. 겉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손님의 상처이며, 따라서 이발사는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라오거(老葛)는 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서비스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상처를 처리하는 일보다 자기 체면과 장사에 미칠 영향을 더 먼저 걱정한다. 그는 다급하게 “你在我这里剃过头, 回头顶着创可贴在街上走, 不等于做广告吗? 不等于说, 我老葛把人脸上老刮口子, 我以后生意还做不做了? (네가 내 가게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반창고를 붙인 채 거리를 돌아다니면, 그게 곧 광고하는 셈 아니냐? 내가 사람 얼굴이나 자꾸 베는 이발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하겠느냐?)”¹³⁾라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본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손님의 상처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숨씨 좋은 이발사’라는 외형적 평판과 생업 유지에 대한 불안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 뒤로 밀리고, 표면적 이미지와 체면의 관리가 우선순위를

12)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55쪽.

13)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21쪽.

차지한다. 이처럼 《咸的玩笑》은 매우 작은 생활 장면을 통해, 일상의 논리가 실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외형 유지와 체면 보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로 여기서 형식과 본질의 위계는 완전히 뒤바뀐다.

결국 《咸的玩笑》에서 ‘일상 논리의 전도’란 형식과 표상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과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본질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새해 선물’에서는 배려의 형식이 공격의 통로로 바뀌고, ‘콩나물 간’에서는 표층적 현상이 관계의 본질을 가리며, 이발소 장면에서는 상처의 처리보다 체면과 외형이 더 중요한 것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咸的玩笑》의 일상은 더 이상 안정된 질서의 공간이 아니라, 외형이 본질을 압도하고 형식이 실재를 대체하는 부조리의 현장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일상 논리의 전도’는 이 작품의 부조리한 서사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Ⅲ. 블랙유머와 현대인의 생존 곤경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咸的玩笑》은 일상적 사소함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 구조를 드러낸다. 그러나 류전원은 이러한 부조리를 단순히 비극적 정조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어긋난 대화, 우스꽝스러운 장면, 미세한 반전과 엇갈린 반응을 통해, 일상의 불균형과 인간관계의 파열을 블랙유머의 형식으로 조직한다. 이때 블랙유머는 현실의 고통을 가볍게 덮는 수사가 아니라, 무너진 권위,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곤경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서사 방식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咸的玩笑》에 나타난 블랙유머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며, 그것이 현대인의 생존 곤경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권위와 질서의 붕괴,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 웃음의 생존 전략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권위와 질서의 붕괴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단순히 우스운 장면의 병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어야 할 권위가 구체적인 생활 장면 속에서 점차 효력을 잃고, 끝내 다른 논리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작품에서 권위는 안정된 질서를 부여하는 중심이라기 보다, 일상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무력화되는 불안정한 대상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류전원은 장터, 장례식, 사적인 상담의 자리와 같은 생활 현장을 통해 권위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쉽게 붕괴하는지를 보여 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그 웃음의 바닥에서 현대인의 일상을 지탱하던 질서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서사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붕괴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흰쥐 ‘아르키메데스’ 에피소드이다. 작품 속 흰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과학자의 권위를 호출하며, 자연스럽게 계산 능력과 논리성, 이성적 판단의 이미지를 불러온다. 실제로 이 흰쥐는 숫자를 세고, 무게와 가격에 반응하며, 사람들의 질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답하는 존재로 소비된다. 다시 말해, 장터라는 가장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 이 흰쥐는 일종의 ‘이성의 권위’를 표상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그러나 작품의 핵심은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현실 장면 속에서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 결정적 계기는 텐진슈(田锦绣)가 던지는 질문에서 발생한다. 그녀는 “树上有六只鸟，一枪打下一只，树上还剩几只?(나무 위에 새 여섯 마리가 있는데 총으로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리면, 나무 위에 몇 마리가 남느냐)”¹⁴⁾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수량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14)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42쪽.

실제로는 계산의 논리와 생활의 상식을 겹쳐 놓은 언어적 함정이다. 수학적으로는 여섯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쏘면 다섯 마리가 남아야 하지만, 현실의 감각으로는 총소리가 나는 순간 나머지 새들이 모두 날아간다. 즉 이 문제는 순수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현실의 맥락을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실패는 단순한 오답 이상의 의미를 띤다. 흰쥐는 계산의 논리에 따라 반응하지만, 인간의 질문은 이미 계산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층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똑똑한 쥐’의 체면만이 아니라, 계산 가능성과 현실 이해가 곧바로 일치하리라는 믿음 그 자체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의 실패 이후 장면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점이다. 작품은 이 지점에서 더 높은 차원의 토론이나 합리적 설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장면은 즉시 신체와 폭력의 차원으로 이동한다. 두타이바이는 사태가 격화되자 “杀死一只老鼠不犯法。杀了它，再说咱俩的(쥐 한 마리 죽이는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부터 죽이고 나서 우리 둘 문제를 말하자)”¹⁵⁾라고 말하며 상황을 압박한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장면의 출발점이 “몇 마리가 남느냐”는 인지적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은 “죽일 수 있느냐”는 물리적 위협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계산과 판단으로 대표되는 이성의 권위가 제시되고, 이어 그것은 언어적 함정 앞에서 효력을 잃는다. 다음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한 신체 반응이 발생하며, 마지막에는 폭력이 사태를 장악한다. 질서의 중심은 점점 더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차원으로 내려간다. 위대한 수학자의 이름을 가진 쥐가 질문 하나에 걸려들고, 계산의 실패가 오줌, 똥, 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지나치게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희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자리를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감정, 체면, 위협, 폭력이 얼마나 쉽게 점령하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15)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44쪽.

권위의 붕괴는 장례식 장면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두타이바이는 장례식 사회자로서 공자, 노자, 당시와 송사에 기대어 품위 있는 추도 분위기를 이끌려 한다. 이때 그가 대표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 기술이 아니라, 전통 교양과 의례 질서에 기반한 문화적 권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의 추도문이나 고전 인용이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공연이다. 예문 자료가 지적하듯, 이 장면에서는 장례의 ‘애도’라는 본래 목적보다 ‘누가 더 눈길을 끄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장례의 본래 목적이던 애도는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구경거리와 흥밋거리가 대신하게 된다.¹⁶⁾ 바로 이 지점에서 블랙유머가 발생한다. 원래 가장 엄숙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가장 소란스럽고 속된 흥밋거리의 장이 되며, 삶과 죽음을 정돈해 주어야 할 의례는 감각적 자극의 논리에 잠식된다. 여기서 붕괴하는 것은 장례식 한 장면의 품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던 의례적 질서와 문화적 위계 자체이다. 즉 권위는 더 이상 사람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중심이 아니라, 더 강한 자극 앞에서 쉽게 밀려나는 불안정한 표식으로 남는다.

또 다른 예는 신시행(申时行)의 사례이다. 그는 스스로를 철학적 사유와 고급 지식의 세계에 가까운 인물로 위치시키며, 니체와 사르트르를 논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실제 삶의 위기 앞에서 그가 보여 주는 모습은 고상한 사유의 주체라기보다 현실 문제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허둥대는 불안정한 개인에 가깝다. 그는 여학생의 임신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결국 자신이 알잡아보던 두타이바이를 찾아와 돈까지 주며 조언을 구한다. 이때 그의 태도는 “说是闲聊，聊的却是正事，非付费，不足以显示郑重(겉으로는 한가한 잡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의 진중함을 드러낼 수 없다)”¹⁷⁾라고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표현은 앞 절에

16)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69-172쪽.

서 보았듯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을 보여 주는 동시에, 철학적·지적 권위가 실제 삶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드러낸다. 원래라면 그는 사유와 지식의 힘으로 현실을 설명하거나 통제해야 할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고서라도 누군가의 말을 빌려 상황을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여기서 철학적 권위는 현실의 곤경을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벗겨지는 허약한 외피로 드러난다. 류전원은 바로 이러한 낙차에서 블랙유머를 길어 올린다.

결국 《咸的玩笑》에서 권위와 질서의 붕괴는 단지 한두 인물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아르키메데스’ 에피소드에서 이성의 권위는 언어적 함정과 폭력 앞에서 무력화되고, 장례식 장면에서는 의례적·문화적 권위가 감각적 자극에 밀려나며, 신시상의 사례에서는 철학적·지적 권위가 생활의 구체적 난관 앞에서 허무하게 해체된다. 이처럼 작품은 다양한 생활 장면을 통해, 현대인의 일상에서 권위와 질서가 더 이상 안정된 판단의 근거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그 붕괴의 순간에, 류전원 특유의 블랙유머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블랙유머는 권위 붕괴를 꾸며 주는 장식이 아니라, 권위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서사 방식 그 자체이다.

2.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권위의 붕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안정적인 지지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말의 의미 역시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 절에서 말하는 ‘관계와 의미의 불안정’이란, 인간이 여전히 타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관계에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또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그 말이 더 이상

17)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80쪽.

안정된 의미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바로 이처럼 관계가 사람을 지탱하지 못하고, 언어가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라오인(老殷)과 두타이바이(杜太白) 사이의 대화이다. 두타이바이는 아들의 코트를 짧게 수선하려고 라오인을 찾아가 “老殷, 麻烦你把这件大衣改一改, 把长大衣改成短大衣(라오인, 번거롭지만 이 코트를 좀 고쳐 주게. 긴 코트를 짧은 코트로 바꾸고 싶어)”¹⁸⁾라고 말한다. 그러나 라오인은 곧바로 “事先说好, 年前可改不了(미리 말해 두는데, 설 전에는 고칠 수 없어)”라고 답한다. 두타이바이가 다시 “有点急事, 要用这衣裳, 帮个忙(급한 일이 있어 이 옷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게)”¹⁹⁾라고 요청하자, 대화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오인은 스승의 기일과 시안행을 언급한 뒤, 결국 “人家一辈子是咋活的, 我一个小裁缝, 一辈子是咋活的(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나 같은 작은 재단사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고 싶을 뿐이야)”²⁰⁾라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겉으로는 같은 현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두타이바이에게 ‘급한 일’은 연말 전에 옷을 고쳐야 하는 실질적 필요이지만, 라오인에게 그것은 스승의 기일과 병마용,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대화는 분명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지 않다. 한쪽은 생활상의 필요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 기억과 실존적 사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해야 할 소통은 오히려 어긋남과 지연의 장이 된다. 이처럼 《咸的玩笑》에서 관계는 대화 그 자체로 보장되지 않으며, 언어 역시 객관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라기보다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굴절되는 매개로 작동한다.

18)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57쪽.

19)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57쪽.

20)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60쪽.

이와 같은 의미의 불안정은 지밍(智明) 화상과의 대화에서 더욱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누군가가 지밍에게 “‘苦海无边(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고)’과 ‘佛法无边(불법의 이치는 끝이 없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변하냐”고 묻자, 지밍은 “有边更无边(끝이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끝이 없다)”²¹⁾이라고 답한다. 질문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다시 “有边就是无边, 无边就是有边(끝이 있다는 것이 곧 끝이 없다는 것이고, 끝이 없다는 것이 곧 끝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질문자는 “大师这种车轱辘话, 我听得多了, 没一回是听得懂的(대사님, 이런 빙빙 도는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없습니다)”²²⁾라고 반응하고, 결국 모두가 웃음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

이 장면에서 질문자는 두 개념의 차이나 우열을 분별할 수 있는 해답을 기대하지만, 지밍의 대답은 그러한 구분 자체를 무효화해 버린다. 언어는 여기서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말은 존재하지만, 그 말은 상대를 이해시키기보다 이해 불가능성 자체를 드러낸다. 바로 이 점에서 블랙유머가 발생한다. 겉으로는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질문자를 더 깊은 해석의 미로 속으로 밀어 넣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咸的玩笑》가 인간 사이의 대화를 단순한 소통의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말이야말로 오해와 지연, 미궁을 만들어 내는 근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는 두타이바이가 텐진슈(田锦绣)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장면이다. 텐진슈가 두타이바이의 전처에 관한 소문을 집요하게 캐묻자, 두타이바이는 “卿喜传人语, 不能复语卿(그대는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니, 다시는 그대에게 말할 수 없다)”²³⁾라고 문어체 표현으로 응수한다. 이에 대한 텐진슈의 반응은 “啥意思? 听毬不懂(무슨 뜻이야? 도무

21)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7쪽.

22)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7쪽.

23)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62쪽.

지 못 알아들겠네)”²⁴⁾이다. 이 짧은 응수는 관계 속에서 언어가 더 이상 이해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밀어내고 대화를 끝내는 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두타이바이는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를 일부러 선택함으로써, 대화를 더 깊이 이어 가기보다 소통의 문 자체를 닫아 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불안정이 단순한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 속 힘의 비대칭과 의도적 회피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다리가 아니라 관계를 차단하는 장치가 된다. 이런 점에서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가 관계의 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데서 형성된다.

이처럼 《咸的玩笑》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비교적 분명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를 필요로 하고, 여전히 말을 통해 위로와 이해를 구하지만, 그 관계와 말은 더 이상 안정된 기반이 되지 못한다. 라오인과 두타이바이의 대화에서는 같은 말이 전혀 다른 삶의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지며, 지밍의 선문답에서는 언어가 소통보다 의미의 불확정성을 확대하고, 두타이바이의 문어체 응수에서는 언어가 이해의 다리가 아니라 대화 종료의 도구로 사용된다.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언어 역시 더 이상 의미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 작품의 블랙유머가 형성된다. 이때의 웃음은 관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웃음이 아니라, 관계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의미가 좀처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한 웃음이다. 그런 점에서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언어 역시 더 이상 의미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현대적 삶의 조건을 드러내는 서사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4)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62쪽.

3. 웃음의 생존 전략

《咸的玩笑》에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권위의 붕괴, 관계의 불안정, 의미의 불확정성 이후에도 인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최소한의 대응 방식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웃음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뒤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조차 주체가 그 현실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내는 우회적 태도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咸的玩笑》의 블랙유머는 비극을 가볍게 희화화하는 데 있지 않고, 비극적 현실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가를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웃음의 전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빠리(巴黎)와 류샤오핑(柳小凤)의 황허 장면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현성 사회의 윤리와 여론 속에서 점차 궁지로 몰리고, 끝내 함께 죽는다는 상상에까지 이른다. 소설의 부록은 이들이 죽음을 결심하고 황허로 향하는 과정을 그린다. 빠리는 죽기 전 “痛痛快快喝一场(실컷 통쾌하게 한잔하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菜都没做, 喝下一斤半白酒(안주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백주 한 근반을 마셨다)”고 서술된다. 만취한 채 황허에 도착한 빠리는 강을 바라보며 “这不是黄河, 是缎子, 我不信缎子能淹死人(이건 황허가 아니라 비단이야. 나는 비단이 사람을 빠뜨려 죽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어 소설은 “两人抱在一起, 笑了(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웃었다)”²⁵⁾라고 적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 내는 태도이다. 빠리는 황허가 실제 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의 가능성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말의 비틀기와 웃음을 통해 그

25)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64쪽.

위험을 잠시 다른 감각의 표면으로 바꾸어 놓는다. 황허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강이지만, 그는 그것을 ‘비단’이라고 다시 부름으로써 죽음의 압도성을 한순간 밀어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웃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즉시 자신을 완전히 짓누르지 못하게 하는 생존적 반응이 된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 직후 웃고, 빠리는 류샤오핑의 웃을 벗기며 “就在这儿，干上一场(바로 여기서 한 판 하자)”²⁶⁾라고 말한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삶의 본능적 행위를 통해 아직 살아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웃음은 죽음을 제거하지 않지만, 죽음이 곧바로 주체를 장악하는 것을 잠시 늦춘다. 즉 《咸的玩笑》에서 웃음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절망을 곧바로 절대적인 것으로 승인하지 않기 위한 미세한 저항의 형식이다.

신시성(申时行)의 사례는 웃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함을 보여 준다. 그는 여학생의 임신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스스로를 철학자로 여기며 니체와 사르트르를 논하던 그이지만, 이 구체적이고 난감한 생활의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결국 그는 “申时行哭着哭着，索性趴在桌子上，投入地哭起来，像个女学生，直哭得抽抽泣泣(신시성은 울다 울다 아예 탁자에 엎드려, 여학생처럼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²⁷⁾는 상태에 이른다. 바로 이때 종업원이 건네는 “哥，不急(형님, 조금해하지 마세요)”라는 한마디가 장면의 기류를 바꾼다. 소설은 이어서 “杜太白噗嗤笑了，申时行也破涕为笑(두타이바이가 피식 웃자, 신시성도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²⁸⁾라고 적는다.

여기서 웃음의 기능은 문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신시성이 직면한 현실적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어떤 본질적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업원의 짧은 말과 뒤이은 웃음은, 문제만이 유일한 현실이 되어 버린 상태를 잠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시성은 웃은 뒤에도 여전히

26)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64쪽.

27)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92쪽.

28)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93쪽.

히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최소한 문제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에서는 한순간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웃음은 해결의 형식이 아니라, 무너지는 정서를 간신히 붙들어 매는 임시적 장치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블랙유머는 위기를 지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주체가 당장 붕괴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정서적 유예를 제공한다.

지밍(智明)의 마지막 말은 이러한 웃음의 전략이 가장 깊은 층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임종 직전에 “好黑(참 어둡구나)”, “好亮(참 밝구나)”²⁹⁾이라고 반복한다. 이 표현은 직접적인 웃음처럼 보이지 않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가장 깊은 의미의 ‘웃음의 형식’으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세계는 어떤 최종적 화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밍의 생애는 상처와 환속, 재출가와 재건의 과정을 거치며 결코 단순한 구원 서사로 정리되지 않는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지식은 삶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으며, 윤리적 책임의 문제도 끝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담아 버리지 않고, ‘어둠’과 ‘밝음’을 함께 말한다.

이 병치는 고통과 위안, 실패와 수용, 상실과 미세한 빛이 끝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 점에서 지밍의 마지막 말은 비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내부에서도 여전히 세계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를 남긴다. 모든 것이 단지 ‘검다’고만 말해진다면 그것은 절망의 완전한 봉쇄가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이 ‘밝다’고만 말해진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손쉬운 초월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好黑”와 “好亮”을 함께 말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끝내 하나의 의미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때 웃음은 더 이상 외적인 표정이 아니라, 세계의 모순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존재론적 태도로 확장된다.

이처럼 《咸의玩笑》에서 웃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

29) 刘震云, 《咸의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19쪽.

실을 지워 버리거나 비극을 덮는 장치가 아니라, 비극이 너무도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생존의 기술이다. 빠리의 웃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현실을 다른 표면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이고, 신시싱의 웃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서의 붕괴를 잠시 늦추는 장치이며, 지밍의 마지막 말은 세계의 모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마지막 표현이다. 이 세 경우에 공통적인 것은, 웃음이 언제나 문제 해결 이후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咸的玩笑》에서 웃음은 해결이 아니라, 무너진 세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다.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의미는 안정되지 않으며, 권위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말해야 하며, 감당해야 한다. 바로 그때 웃음은 현실을 제거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무게를 잠시 비껴 들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류전원의 블랙유머는 단순한 풍자나 익살이 아니라, 현대인이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미세한 생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咸的玩笑》은 거대한 사건이나 비범한 인물을 통해 부조리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류전원은 돈 관리, 명명(命名), 음식의 간, 선물의 형식, 일상적 대화와 같은 사소한 생활 요소를 서사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가장 평범한 일상 내부에서 부조리가 어떻게 생성되고 증폭되는지를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일상은 더 이상 안정된 삶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과 의미의 어긋남, 삶의 불안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으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咸的玩笑》의 핵심은 일상적 사소함을 단순한 현실 재현의 대상으로 다루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부조리의 생성 구조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咸的玩笑》에 나타난 부조리한 서사 구조를 인과 질서의 이완과 우연성의 지배, 명명과 실재(實在)의 어긋남, 일상 논리의 전도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의 부조리는 비일상적 사건이나 극단적 과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내부에 잠재해 있던 어긋남과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咸的玩笑》은 ‘일상 속에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조리가 바로 일상 내부의 구조적 작동 방식 속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러한 부조리를 단순한 비극이나 풍자에 머물지 않고, 블랙유머의 형식으로 조직한다는 데 있다. 작품 속에서 권위는 현실 장면 속에서 무력화되고,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며, 언어 역시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기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흔들린다. 그러나 류전원은 이러한 붕괴를 무겁고 비장한 어조로만 서술하지 않고, 어긋난 질문과 응답, 형식과 기능의 불일치, 우스꽝스러운 장면과 엇갈린 반응을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咸的玩笑》에서 블랙유머는 부조리 위에 덧붙여진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감각하고 서술하는 핵심적인 표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咸的玩笑》은 이러한 블랙유머를 통해 현대인의 생존 조건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작품 속 인물들은 더 이상 안정된 관계, 확고한 의미, 유효한 권위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전히 침묵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계속 말하고, 관계를 시도하며, 때로는 웃음의 형식으로 현실을 비껴 선다. 여기서 웃음은 문제 해결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으로 기능한다. 즉 《咸的玩笑》은 웃음을 가벼움의 표지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는 가장 미세한 생존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咸的玩笑》은 류전원 문학이 지속적으로 탐색해 온 일상, 부조리, 블랙유머의 문제를 한층 더 응축된 방식으로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일상적 사소함이 어떻게 부조리의 현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가 어떻게 블랙유머를 통해 현대인의 생존 곤경과 연결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咸的玩笑》은 류전원 `문학의 기존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동시대 중국문학에서 일상과 부조리, 그리고 웃음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刘震云, 《咸的玩笑》,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26.
- 梁维正, 《论刘震云小说的日常生活叙事》,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2023.
- 何慈, 《论刘震云小说的日常生活书写》, 兰州大学 硕士学位论文, 2023.
- 章琦, 《论刘震云小说的叙事策略》, 青岛大学 硕士学位论文, 2023.
- 闫葳, 《论刘震云小说中的“失语者”》, 上海外国语大学 硕士学位论文, 2024.
- 万李敏, 《后现代主义视域下的刘震云小说研究》, 长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24.
- 徐刚, 〈“故事”的情感伦理与存在主义启示——刘震云《一句顶一万句》《一日三秋》合论〉, 《山西大学学报》 第48卷 第4期, 2025.
- 杨子群, 〈刘震云“荒诞生存诗学”的叙事功能与文学史意义——以《一句顶一万句》《我不是潘金莲》《温故一九四二》为例〉, 《艺术研究》, 2025.
- 万魏, 〈刘震云小说黑色幽默主题下的形象塑造及叙事艺术〉, 《绥化学院学报》 第43卷 第11期, 2023.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Liu Zhenyun's 2026 novel *Xian de Wanjiao* and explores how everyday trivialities become concrete sites for the production of absurdity, and how such absurdity is further articulated through the narrative form of black humor. Methodologically, the study is based on close reading and focuses on key scenes and recurring narrative patterns throughout the tex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novel reveals the loosening of causal order, the disjunction between naming and reality, and the inversion of everyday logic through ordinary details of daily life, such as money management, acts of naming, the seasoning of food, the form of gifts, and casual conversa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ollapse of authority and order, the instability of relationships and meaning, and laughter as a strategy of survival, the novel transforms imbalanced everyday experience into a black-humorous narrative structure. In this sense, black humor in *Xian de Wanjiao* is not an additional rhetorical ornament attached to absurdity, but a central expressive form through which an unstable reality is perceived and narrated.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laughter in the novel does not function to solve problems; rather, it operates as a minimal strategy of survival that enables the characters to continue living amid disordered relationships, unstable meaning, and the collapse of authority. Ultimately, *Xian de Wanjiao* shows that everyday trivialities are not merely the background of absurdity, but the very space in which absurdity is generated and unfolds, while black humor constitutes the key narrative form through which this lived reality is represented.

Key Words : 일상적 사소함(daily triviality), 부조리(absurdity),
블랙유머(black humor), 서사 구조(narrative structure),
류전원(Liu Zhenyun)